창원 정법사, 영축총림 초청 승보공양



정법사 신도대표가 8월 5일 통도사 대중스님들에게 승보공양을 올리고 있다.

8월 5일 2층 만불전에서 봉행

성낙두 경남지사장

창원 정법사(주지 광우)는 불교 사대명절인 우란분절(백중)을 맞아 진리의 공양을 베푸는 49일 지장기도 및 7재 천도재일 법회를 8월 5일 2층 만불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혜남 스님을 비롯해 통도사 율원 승가대학 학인 스님, 정법사 사부대중이 참여했으며, 스님 31명에게 승보공양이 이뤄졌다.

7재 천도재일 법회는 6월 25일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초재 7월 1일 정각사 주지 정목 스님 초청법문, 3재 7월 15일 월정사 자현 스님(붓다로드) 초청법문, 5재 7월 29일 분다리카합창단 음성공양, 7재 통도사 대중초청 승보공양 등으로 진행된 바 있다.

회향법회서는 타종 5타를 시작으로 주지 광우 스님 향공양, 신도회, 영축다도회, 분다리카합창단 장삼승보공양, 삼귀의, 반야심경, 발원문 낭독, 주지 광우 스님인사, 영축총림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격려사, 사홍서원, 영단시식, 사부대중과 영축총림 율원스님들이 함께 하는 〈금강경독송기도〉등으로 진행됐다.

이날 승보공양에는 정법사 주지 광우 스님, 영축총림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 율원장 덕문 스님, 한주 도암 스님, 통도사 율원 스님을 비롯한 통도사 스님과 대중 스님들이 참여했다. 또 안미옥 정법사 신도회장 외 신도회, 영축다도회, 분다리카합창단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통도사 전계사 혜남 스님은 "영축총림 구하 스님의 발원으로 창건된 정법사는 경봉 스님이 초대 포교사장을 지낼 만큼 한국불교 현대사에 큰 의미와 가치가 있는 도량"이라며 "주지 광우 스님을 중심으로 활동 해달라. 정성 모아 올려주신 승보공양에 감사함을 전한다"고 서원했다..

통도사 율원장 덕문 스님은 승보공양과 기도정진의 장엄함에 도량의 법향이 충만하고 조상의 은덕을 기리는 불자들의 정진모습과 스님들의 수행전법이 수승한 법연이 되길 발원했다.

주지 광우 스님은 "우란분절 뜻을 실천하고 가르침을 따르고자 정법사 불자님 한분한분의 정성의 원력으로 스님들께 승보공양을 올리는 이 자리가 마련됐다"며 스님과 사부대중에게 감사함을 전했다.

또한 창원 정법사 창건110주년을 맞이하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정진하면서 영축총림 마산포교당은 지역사회와 더불어 법향가득한 사찰이 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도량이 될 것을 서원했다.

분당 대광사, 우리 아이 성장 템플스테이 진행

청솔어린이집과 함께 7월 22일~23일까지 개최

분당 대광사가 청솔어린이집과 함께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대광사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나를 찾고, 너를 알며, 우리를 배운다' 템플스테이를 개최했다.

이번 템플스테이에 대해 대광사측은 "우리 아이 성장 템플스테이 '나, 너, 우리!'는 진정한 나를 찾고 , 나를 비롯한 모든 것에 소중함을 일깨워 '우리'라는 공동체 집단에서의 배려와 하심(下心)을 발현하도록 한다"며 "올바른 마음과 올바른 생각으로 행동하는 어린이로 성장하는 계기이며, 불교 문화 체험을 통해 이웃 종교를 이해하는 마음도 기르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템플스테이에서는 사찰 습의 교육을 통한 기본예절 지도 및 공동생활과 협동심 강화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템플스테이 관계자는 "앞으로 지역사회 상호 협력을 통해 발전을 도모하고 유소년의 올바른 인성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31)715-3000 노덕현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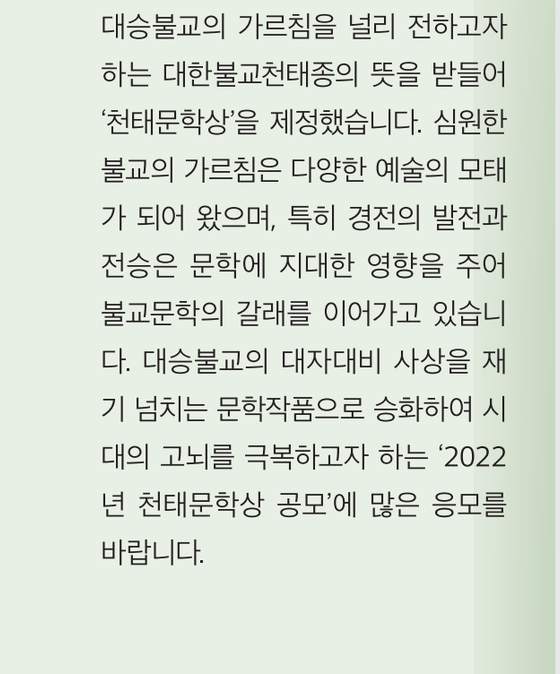


분당 대광사는 지역포교일환으로 청솔어린이집과 템플스테이를 진행했다.

㈜금강신문사는 한국 문학의 발전과 불교문학의 지평을 확장함과 동시에 대승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고자 하는 대한불교천태종의 뜻을 받들어 '천태문학상'을 제정했습니다. 심원한 불교의 가르침은 다양한 예술의 모태가 되어 왔으며, 특히 경전의 발전과 전승은 문학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불교문학의 갈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의 대자대비 사상을 재기 넘치는 문학작품으로 승화하여 시대의 고뇌를 극복하고자 하는 '2022년 천태문학상 공모'에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마감
2022년 10월 31일

발표
2022년 11월 21일



천태문학상

제1회

공모 요강

-분야
운문(시·시조·동시 5편 이상)
산문(수필 3편 이상, 단편소설 1편)

-자격
등단과 무관하며 누구나 가능

-접수
ggbn@ggbn.co.kr
(전자우편만 가능, 연락처 기재 필수)

-마감
2022년 10월 31일

심사 및 수상자 발표

-수상작 발표
2022년 11월 21일
개별 통보 및 금강신문 홈페이지

-수상작은 금강신문에 게재

시상 계획

-대 상
1편, 상금 1천만원 및 상장 상패

-우수상
2편, 각 상금 500만원 및 상장 상패

-장려상
5편, 각 상금 100만원 및 상장 상패

-시상식
2022년 12월 초순

기타

-응모작은 반드시 신작이어야 하며 수상작이 표절작이거나 기존 발표작 등으로 밝혀지면 시상을 취소함과 동시에 상금 및 상장 상패 일체를 회수하며 경우에 따라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문의

02-723-1548
2022년 천태문학상 운영 사무국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금강신문사

백양사 운문선원장 정견스님 다비식 엄수

백양사의 선풍을 이어온 운문선원 선원장 정견스님의 다비식이 엄수됐다. 백양사(주지 무공)는 8월 4일 백양사 운문선원에서 입적한 정견스님의 영결식과 다비식을 백양사 대웅전과 전통 다비장인 연화대에서 잇따라 봉행했다. 이날 영결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진우 스님, 주지 무공 스님 등 백양사 문도스님과 신도들 30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명종, 삼귀의례, 영결법요(도성, 현소 스님), 행장소개(만당 스님), 영결사(원광 스님), 조가(불갑사합창단), 조가, 헌화, 인사말(무공 스님)등이 진행됐다.

무공 스님은 "스님은 출가는 저보다 늦은 후배였지만 수행과 전법은 선배와 같은 분이었다. 앞으로 문도들이 정견스님의 수행가풍을 잘 본받아 이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결식을 마친 정견 스님의 법구는 인로왕번을 선두로 명정, 오방번, 위패를 앞으로 하고, 이어 문도들과 장의위원, 스님, 만장, 신도들의 긴 장의행렬로 백양사 전통다비장 연화대로 운구됐다. 이어 다비장에 마련된 장작 위로 법구가 안치되고, '3시간의 다비를 통해 이생과의 인연을 다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화엄사, 모기장 영화음악회 개최

특별한 산사의 영화음악잔치 열렸다. 구례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6일 경내 화엄원 앞마당에서 '제2회 모기장 영화음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에 이어 진행된 모기장 영화음악회는 천년고찰과 영화, 음악, 그리고 여름을 함께 즐기는 독특한 음악회로, 큰 인기와 화제를 한 번에 모은 행사로 주목받았다.

이날 행사에는 500명의 참가자와 100여개의 모기장이 화엄원 큰 앞마당을 가득 채운 가운데 '일 포스티노' '시네마천국' '첨밀밀' '흑인 오르페' '여인의 향기' 등 유명 영화 OST들이 산사에 울려퍼졌다. 특히 박윤우(기타리스트), 데이브 유(아코디언), 송미호(콘트라베이스), 고수정(해금), 러스트(보컬) 등이 참여



해 직접 영화의 감동을 연주하고 조희창 음악평론가의 해설이 곁들여졌다.

덕문 스님은 "천년고찰 화엄사가 시민들과 함께 문화를 향유하는 사찰로 거듭나고자 앞으로 다양한 문화행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빛고을포교원 삼성각 탱화 점안

화엄사 광주 도심 포교당인 빛고을포교원(주지 연성)이 7월 29일 대웅전에서 삼성각에 모실 탱화 점안식을 가졌다. 이날 점안한 산신탱화는 칠성, 산신, 독성탱화와 조왕대신 탱화이다. 빛고을포교원은 도심 속 포교공간으로 전통적 삼성각 건물을 대신해 2층 신도들의 중요 통로에 삼성각을 조성하고 이날 탱화를 새롭게 모셨다. 특히 지난해 11월 창건한 도심포교당의 공간적 효율을 높이고 신도들의 다양한 신앙 공간을 효과적으로 배치한 새로운 시도다. 회주 현고스님의 증명으로 진행된 점안식에는 신도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시불공, 점안식, 합창단 축하공연 등이 이어졌다.

연성 스님은 "전통방식으로 조성된 삼성각



탱화는, 돌가루로 채색해 오랜기간 변색되지 않고 신도들의 신앙대상으로 함께 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화엄사 빛고을포교원은 개원이래 어린이법회, 일요가족법회, 빛고을불교대학, 문화강좌 등을 개설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